

국산 다이아공구 독일서 호평

점유율 41%로 1위 ... 과당경쟁 방지·고가품 개발 긴요

독일에서 한국산 다이아몬드공구가 호평을 받아 현지 수입시장에서 최대 공급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에 따르면 독일 다이아몬드공구 수입시장 점유율은 92년 스위스가 17%, 한국이 10%였으나 93년에는 한국산의 진출이 크게 확대돼 전체의 35%로 수위를 차지한데 이어 94년 들어서도 지난 상반기중 467만달러로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다이아몬드공구 연간 수입규모는 전체수요 1억 6000만마르크(약 1억달러)의 15% 정도인 2500만 4000만마르크(약 1700만 2700만달러)로 지난 92년 통독수요분에 힘입어 3816만마르크를 최고로 기록한 이후 연간 2500만마르크상당이 수입되고 있다.

한국산의 판매가 이같이 독일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높은데다가 품질도 비교적 좋은 것으로 평가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공은 그러나 한국기업간의 과당경쟁 기미가 있고 첫 거래시에는 딜리버리가 좋으나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며 가격도 예측불허라는 것이 많은 바이어들의 반응이라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독일의다이아몬드수입현황(단위: 1000DM)

구 분	1992	1993	1994.1 6
프 랑 스	2,088	1,013	789
네 델 란 드	1,307	1,434	191
이 태 리	2,610	1,823	549
스 위 스	6,499	2,664	1,259
오스트리아	1,376	1,644	1,583
중 국	-	507	103
한 국	3,914	6,664	4,671
일 본	573	417	185
합 계	38,157	19,180	11,386

촉구했다.

또 중국의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타격이 우려되는 점에 비추어 고급 및 고가품의 개발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바이어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수출관행을 시급히 탈피, 독자적인 마케팅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화학저널 1994/12/26>